긴급점검 위기의 광주시립예술단

기준 없는 감독 선임 불신 초래

공모 요건 변경에 특정인 내정설 공신력 하락

작품제작 개입 완성도 저하 행정편의주의 문제

중 광주시의 안일한 행정

광주시향 등 3개 시립예술단체가 출범한 게 지난 1976년이다. 광주시가 예술단체를 운영하기 시작한 지 35년이 넘어가지만 문화행정 마인드는 구태를 벗지 못하고 있다.

특히 공정해야 할 예술감독 공개 모집에서 자격 조건과 심사방법 등 요강을 수시로 변경,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고 이 과정에서 특정인 내정설과 로비설 등 잡음이 불거지면서 공신력이 땅에 떨어졌다.

시는 국악관현악단과 합창단 지휘자 공채에서 '국악(합창) 지휘로 석사 이상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 학력을 제한했다.

그러나 이틀 만에 수정 공고를 내고 이 조항을 삭제했다.

국악 응모자 6명 중 공모 조건에 자격이 합당한 사람은 국악 지휘로 석사 학위를 받은 P씨 한명. 다른 분야의 박사가 2명, 석사가 2명이었으며 예술감독으로 선정돼 행정 절차를 밟고 있는 김광복 전남대 교수는 학사(석사 과정 수료)다. 여기다 김씨가 심사 과정에서 지휘 장면이 담긴 CD를 제출하지 않고 면접 이후에 CD를 낸 것으로 밝혀져 공채가 '특정인'을 뽑기 위한 요식행위가 아니였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문예회관측은 "당초 '지휘로 석사 학위를 받은 사람'을 조건으로 넣은 것은 합창단 지휘자를 염두에 둔 것이었지만 여론을 들어본 결과 제한을 둘 경우 두 부분 다 응시자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수정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예회관의 해명을 곧이 곧대로 받아들이더라도 문제다. 공모 조건이 '사람'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셈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시립합창단장으로 위촉됐다 단원들의 반대로 자진 사퇴한 A씨의 경우 지휘를 전공하지 않았다는 점이 사퇴 요인 중 하나였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이번 공채 과정에서 '지휘 전공'명시는 지켜져야했었다.

무용단의 경우도 당초 모집 대상을 '발레'로 한정하지 않았다가 항의가 들어오자 공고를 수정했다. 여기에 심사 후 10여일이 넘도록 발표를 미뤄 "중간에 합격자가 바뀌었다"는 등 온갖 설이 떠돌며 불신을 가중 시켰다.

그밖에 현재 연임 반대 문제로 파행을 맞고 있는 시립교향악단의 경우도 1년 전부터 단원들과 지휘자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지만 회관측은 조정자 역할을 못하고 있다.

문예회관의 지나친 간섭과 예술인들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편의주의적 행태도 문제다.

지난해 광주시립무용단의 '이순신' 공연에서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당초 무용단은 광주시향과 협연을 진행하려했지만 연주 일정이 맞지 않아 서울의 민간 오케스트라와 협연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문예회관측에서 역량이 되지 않는 지역의 특정 단체를 지정했고 역량 등이 문제가 돼 결국 작업을 하지 못했다.

급해진 무용단은 지난 공연에서 녹화해 두었던 DVD에서 음원을 추출해 공연을 진행했다. 당연히 음향 상태는 엉망이었고 공연의 완성도는 확 떨어졌다.

단원들과의 소통 부재 역시 심각하다. 적절한 의견 수렴도 없이 시가 일방적으로 밀어부쳐 반발만 산 예술단체 법인화 과정이 대표적이다.

현재 문예회관은 TF팀을 꾸려 시립예술단 중장기 발전 방안을 마련중이다. 지난 9월 첫회의를 진행한 TF팀은 당초 지난 11월까지 결과물을 내놓을 예정이었으나 일정이 늦어져 조만간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한 후 이달말까지 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시립예술단의 한 관계자는 "시민에게 사랑받는 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수준있는 공연이 핵심이고, 그 핵심은 실력 있는 감독이 주축이 되어야 한다"며 "하지만 행여 알음이나 줄대기를 통해 감독이 된다면 결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시립예술단체를 운영하는 광주시 문화행정 마인드는 구태를 벗지 못하고 있다. 시립국극단의 공연 모습. 〈광주일보 자료사진〉

"문화예술 일상화로 행복한 광주"

광주문화재단, 오늘 중장기 발전전략 선포

올해로 출범 3년차를 맞은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노성대)이 '행복한 일상, 문화공동체 광주'를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했다.

광주문화재단은 11일 오전 10시30분 빛고을시민문화관 4층 다목적실에서 창립 2주년 기념식과 함께 중장기발전전략 선포식을 갖는다.

재단은 선포식에 앞서 1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시민이 일상 속에서 행복을 누리기 위해 문화가 지닌 상상력과 창조력을 바탕으로 삶의 질을 풍요롭게 실현시켜 나가는 문화공동체를 형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광주문화재단은 '행복한 일상, 문화공동체 광주'를 새로운 비전으로 ▲문화의 공적 책임성 ▲문화예술의 다양성 ▲문화도시의 지속가능성 등 3대 핵심가치를 설정했다.

문화의 기능을 특정 장르나 특정 집단 중심이 아니라 삶의 총체적 영역으로 확장한다는 의미에서 문화창조 역량강화, 문화예술의 일상화라는 실천목표로 구체화하고, 여러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상호교류하면서 풍성한 문화를 창조하기 위해 시민의 문화자력화, 문화정책 다원화를 제시했다.

또 문화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도시단위의 생태 환경을 조성한다는 의미에서 문화네트워크 구축, 문화도시 가치 확장을 실천목표로 내세웠다.

비전과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재단은 조직개편 및 조직운영 방향을 새롭게 수립했다.

지역사회문제 공동해결을 위한 문화예술 협의체를 구성하고 문화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창의적인 조직을 운영할 계획이다. 정책연구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공동체 협력사업 확장을 위한 전담기구 신설, 현장중심 연수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 재단직원 직무역량 강화 등이다.

한편 광주문화재단은 창립 2주년 기념행사에서 재단 창립 이후 기부금을 기탁한 7개 업체에 감사패를 수여할 예정이다. 문의 062-670-7423.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청춘남녀 '극적인 하룻밤'

연극 '극적인…' 내달 3일까지 기분좋은 극장

사랑에 배신 당한 여자와 다시는 사랑을 믿지 않겠다는 남자가 만드는 사랑 이야기.

서울 대학로에서 공연중인 화제의 연극을 지속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연극의 좋다' 시리즈가 올해 첫 작품으로 로맨틱 코미디 '극적인 하룻밤'을 무대에 올린다.

2월3일까지(화~금 오후 7시30분, 토 오후 4시·7시, 일 오후3시·6시) 광주 상무지구 우체국보험회관 기분좋은 극장.

지난 2009년 한국일보 신춘문예 희곡 당선작을 원작으로 한 '극적인 하룻밤'은 사랑에 상처 받은 이들이 육체적인 관계를 넘어서 진정한 사랑을 만들어 가는 과정을 생생하게 그리고 있다.

친했던 선배 형과 사랑했던 옛 애인의 결혼식에 참석한 정훈은 뷔페식당에서 만난 시후 역시 연인에게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알게된다.

시후는 죽고 싶다며, 정훈에게 하룻밤만 같이 자자고 보채고 호기심이 발동한 정훈은 그녀와 하룻밤을 같이 보내는데…. 19세 이상 관람가 작품답게 다소 노골적인 대사와 연기가 펼쳐진다.

전석 3만원. 문의 1600-6689.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알립니다

신춘문예 '시' 당선 취소합니다

'삼거리 점방' 표절로

2013년 본보 신춘문예 시 부문 김승필씨의 '삼거리 점방' 당선을 취소합니다. 이 작품은 이덕규 시인의 '논두렁' 작품 표절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중복 응모나 작품의 표절이 밝혀질 경우에 당선이 취소됩니다'라는 본사 신춘문예 응모 요강에 따라 해당 작품의 당선을 취소합니다.

해당 작품 응모자도 '당선취소결정'을 수용했습니다. 광주일보 시 부문 신춘문예 심사를 맡았던 박남준·김정란 시인도 "당선 취소 결정에 이견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두 심사위원의 판단은 광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께 사과드리며,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신춘문예 응모작을 더욱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오늘 예술의거리 활성화 포럼

광주대 산학협력단(단장 이명규)인 예술의 거리 아트 스페이스는 11일 오후 3시 광주시 동구 궁동 예술의 거리 예향화랑 1층에서 '거버넌스를 통한 예술의 거리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예술의 거리 2차 포럼을 개최한다.

이날 포럼에서는 문장철(마산 창동 예술촌)촌장의 '거버넌스를 통한 창동예술촌의 성공사례'란 주제 발표 등이 있을 예정이다.

이어 2부 토론에는 김영우(광주시의회 의원), 박호재(광주문화재단 정책실장), 박진현(광주일보 편집부국장 겸 문화선임기자), 안철환(예술의 거리 번영회장), 조승기(대인예술시장 미테갤러리관장)씨 등이 참여한다. 문의 062-471-1515.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